

조학균 신부의 미사 이야기

※ 주 : 평화신문에 연재된 조학균 신부님의
"미사 이야기"입니다.



조학균 베드로 신부
예수회, 전례학 박사

20 감사송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덕목이며 또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시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를 성찬예식의 재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송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갖고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성부에게 바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례사제가 봉헌된 예물을 받은 후 바치는 감사송은 “하느님의 구원 행위에 감사 드리는 찬양 기도”이며 사제와 회중의 교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감사송은 함축된 언어를 통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을 배경에 두고 있는 기도로, 공동체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감사송은 파스카 신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인간 구원 행위에 대해 포괄적이고 함축적으로 감사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송은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 1) 사제와 회중이 교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부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드높이”와 “주님께 올립니다”라는 부분에서 사제는 “마음을 드높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느님께 대한 봉헌을 강조한다. 회중은 자신들의 마음, 온 존재를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응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 2) 사제 혼자서 회중에게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교회 전례력에 따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와 성인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도 기뻐하며 찬양 노래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 3) ‘거룩하시도다(Sanctus)’는 하느님의 구원 업적을 듣고 난 후, 기쁨에 찬 환호성으로 사제와 회중이 함께 밝고 기쁘게 노래하는 부분이다. ‘거룩하시도다’를 세 번 외치는 것은 (일부 신자들이 성부·성자·성령을 가리킨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리스 언어의 표현 방식으로 최상급을 나타낸다. 그리고 ‘거룩하시도다’는 모든 회중들이 충분한 기쁨과 찬양을 위한 표현임을 기억하여 밝고 빠른 성가곡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1 감사기도

감사기도의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만찬 중에 빵과 포도주 잔을 들고 성부께 바치신 감사기도 또는 찬양기도에 기원

을 두고 있다. 유대인들의 종교 풍습에서 가장은 빵과 포도주 잔을 들고 찬양기도(베라카)를 바치던 것을 초기 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찬양기도(에올로기아) 또는 감사기도(에우카리스티아)로 바꿔 사용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초기 교회에서는 감사기도를 위한 특별한 양식이 없었다. 사실 초기 교회 많은 사제들은 이미 다른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감사기도문을 빌려 사용하거나 주교나 선배사제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정리하고 보존해 사용했다. 그리하여 훌륭한 감사기도문들은 후세에까지 남아 전해졌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전례쇄신을 통해 교회는 로마 예식만을 고수하지 않고 동방 전통 역시 존중해 종래의 기도문 외에 새로운 세가지 기도문을 미사경문에 첨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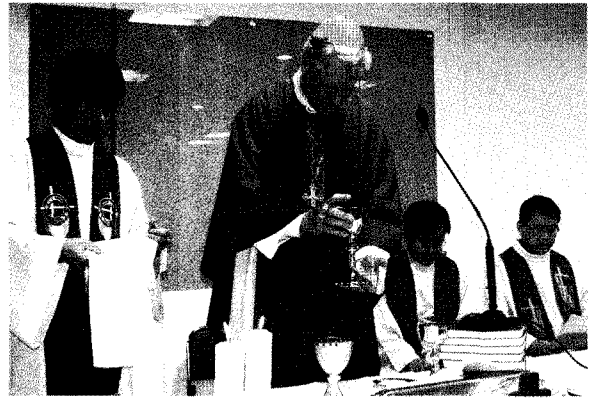
하지만 오늘날 완성된 성찬 감사기도문 표현을 주례사제가 개인적 신념(?)에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성찬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4개의 성찬 감사기도문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례예식을 통일화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4개의 성찬 감사기도문은 표현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성 안에서 공통적인 것은 성찬기도에서 빠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변화의 말씀만을 통일시켜 놓았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는 미사전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효성(ex opere operato, 성사 집행자의 자세나 상태와 무관하게 성사를 집

전하는 행위 자체로 성사 효과가 남)과 인효성(ex opere operantis, 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효과가 다름)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리스도께서 최후만찬 때 하신 말씀을 중요시하고, 사



제가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감사기도를 통해 성서적 내용을 근거로 하는 성체성사의 내용과 성변화의 내용은, 항상 성찬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성찬 감사기도는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로 변하는 거룩한 변화가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 통상문에 나오는 감사기도 중 제1양식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종래의 로마 감사기도 전문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제2양식은 히폴리토의 아나포라(‘올리다’, ‘거양하다’라는 그리스 말에서 유래하는데 사제가 모든 공동체 이름으로 성령에게 청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봉헌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성찬례의 중심 의미를 지닌다)라 불리는 3세기의 성찬기도를 현대에 맞춘 기도문 양식이다.

제3양식은 고대 라틴 전례의 전통을 종합해 새로 만든 기도문이며, 제4양식은 동방교회 교부 바실리오의 아나포라에서 취해서 간결하게 정리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사기도에서 제1양식과 제3양식은 고유한 감사송이 있지 않고, 제2양식은 고유 감사송이 있지만 당일 미사가 대축일 미사인지 기념 미사인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제4양식은 고유한 양식을 넣어 바꾸거나 교체해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감사기도 양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감사기도의 첫 구절은 성부께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자신들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듯이, 감사기도 역시 성부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거룩한 성찬례에 참여하게 한다.

성부께 드리는 기도를 마친 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성령의 오심을 기념한다. 성령의 오심은 봉헌된 예물인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피가 되는 성변화를 위한 것이다. 이때 사제는 봉헌된 제물에 십자가 표를 하고, 손을 펴서(공동 집전하는 사제는 예물 축성 시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한다) 성령의 작용을 청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부에게로 돌아가, 성부로부터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한 성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요한 16,7).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요한 15,26).

감사기도의 가장 중요한 에피클레시스(축성기원)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변화가 에피클레시스를 통한 축성의 말씀으로 완성됨을 교회는 설명하고 있다(참조, 미사경본 총지침 3항).

감사기도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만찬 예식 안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재현함으로써 성부와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것이다.

미사를 공동 집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제가 감사기도를 읽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공동 집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제단의 일치된 모습을 보여 주면서 더욱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또 역할 분담을 통해 사제단의 협력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기도 하다.

공동 집전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제가 두 사람 일 때는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산 이들을 위한 부분을 읽게 된다. 세 사람일 경우 주례사제의 오른쪽(일반적으로 선배사제)에 있는 사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왼쪽에 있는 사제가 바친다. 그리고 그 이상의 사제가 함께 드리는 경우(예를 들면 교회 대축일을 기념하는 미사, 사제서품미사, 수도원 종신 서원 미사, 새 사제의 첫 미사 등)에는 지위나 수품 순, 혹은 나이를 고려해서 주례사제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자리를 잡는다.

감사기도의 선택은 주례사제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사경본 총 지침」을 통해 한국 천주교회는 감사기도 제2양식은 평일과 특별한 환경에서, 제3양식은 주일과 축일에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365항 참조). 주일이나 축일에 3양식에 비해 짧다는 이유로 2양식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전사제는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가 여럿일 경우에는 저의 주교(아무...)와 협력 주교들과 같이 뭉뚱그린 말로 표현한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문에 있어서는 주례자가 주교인 경우 기도문 안에서 ‘주님의 일꾼 교황(현 교황은 베네딕토 16세)’과 다음에 오는 주교 부분에서는 ‘주님의 부당한 종인 저와’라고 읽으며, 주교가 자기 교구 밖에서 주례를 할 경우에는 ‘이 교회의 주교인 저희 형제(아무...)와 주님의 부당한 종인 저와’라고 한다(미사경본 총 지침 149항).

감사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마침 영광송(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은 주례자 혼자 바치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 공동 집전자와 함께 낭송한다. 하지만 공동 집전자는 집전하는 사제의 목소리보다 크게 내지 않는 것이 좋다.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사제들과 함께 낭

송하지 않는다(미사경본 총 지침 236항).

이때 주례사제는 성반과 성작을 들고(공동 집전자와 함께 하는 경우 성반, 성작 혹은 성함을 나누어 든다) 신자들에게 성변화가 완성된 성체와 성혈을 보여준다. 이는 집전사제가 성삼위께 또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구원 업적에 대한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환희의 표현이며 성변화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신자들은 '아멘'이라는 화답을 통해 성령을 통한 성변화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데, 성 암브로시오는 이때 신자들의 화답소리를 천둥소리에 비유했다. 신자들은 '아멘'을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데, 이때는 짧으면서 밝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응답해야 한다.

22 성변화



미사전례 특히 성찬례에 참석하는 이들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도 성변화를 통해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최후 만찬을 거행한 사건을 가톨릭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제가 지금 이 순간에(Hic et nunc) 예수 그리스도가 거행한 것을 똑같이 재현(representation)하는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와 제자들이 거행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memory)하는 것이다. 즉 가톨릭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읽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하는 반면, 개신교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변화 없이 빵과 포도주로 남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한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변화에서 집전 사제는 우선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며...”(이때 손을 모아 예물 위에 펴 었는다) 하고 성령 청원기도를 통해 봉헌된 제물이 축성되기를 간구한다. 이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그리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라는 성찬 제정과 축성문의 말씀과 행위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를 이룬다.

빵(혹은 포도주)을 축성하는 순간에 앞서 주례사제는 빵을 조금 들어 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도문을 외운다. 기도문을 외울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편안하고 침착한 마음을 갖고 천천히 읽어 나간다.

기도문을 외운 후 사제는 빵(혹은 포도주)에서 그리스도의 몸(혹은 피)으로 성변화된 성체를 성찬례에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볼 수 있도록 쳐든 후, 성체를 성반에 내려놓은 다음 허리를 굽혀 절을 한다. 이때 모든 회중들 역시 사제를 따라 모두 절을 한다.

필요에 따라 봉사자(혹은 복사)는 축성 바로 전에 종소리로 신자들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며, 아울러 성체와 성혈이 담긴 성작을 높이 들어 보일 때 지방의 풍습에 따라 종을 친다.

봉헌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성변화한 후에 사제는 회중을 향해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친다. 이때 ‘신앙의 신비여!’는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읽어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교우들은 제시돼 있는 3 종류의 양식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응답하며 환호하도록 한다.